

건강을 지키는 현장

“불우한 이웃에게 건강을 선물한다”

사회복지시설수용 아동·노인 무료 검진해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역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산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고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해 눈길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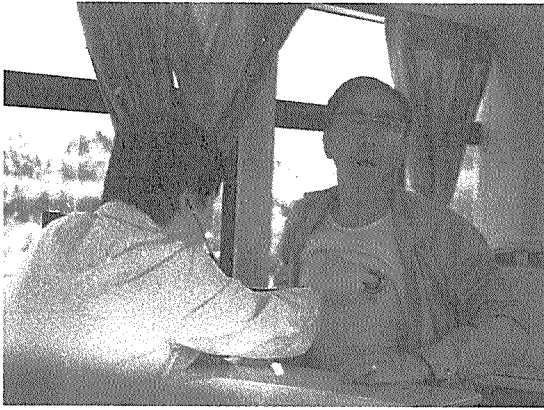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실시된 무료순회검진을 통해 1천여명의 대구시내시설 아동·노인들이 검사를 받았고,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불우한 이웃에 건강 혜택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노인·아동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 불우한 이웃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된 건협 대구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계획”은 대구직할시의 도움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실시된 이 무료 순회검진의 일정 및 시설 선정에 대구직할시가 많은 협조를 해 준 것이다.



이번 무료 순회 검진을 통해 대구시내 13개 시설의 노인과 아동 1,025명이 건강검사를 받았다.

○ 검진차량 이용해 간염, 빈혈, 간기능 검사 등

『검진차량을 이용해 순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종목은 건강진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로, 뇨검사, 간염검사, 혈액형, 흉부X선촬영, 기생충검사, 빈혈검사, 노인 간기능검사 등 이었고 건강상담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이 순회검사에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검진반이 투입되었습니다.』

대구지부 김병섭 사무국장의 검진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시설수용 노인·아동 등 1,025명 검사

사회의 무관심과 불우한 환경에 처한 노인·어린이들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실시된 이 순

건강을 지키는 현장

회검진을 통해 SOS어린이마을, 애생보육원, 신생원 등 대구 시내의 총 13개 시설의 노인 및 아동 1,025명이 건강검사를 받았다.

○ 이들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 실시 계획

건협 대구지부는 이 순회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별 검진카드를 작성해 나누어주고,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협 대구지부는 검사 외에도 구급약품, 빵, 음료수 등을 각 시설에 나누어주고 모두들 깨끗하게 살아나갈 것을 격려했다.

○ 모자가정자립학교 운영에도 참가

한편 건협 대구지부는 이 순회검진 외에도, 대구직할시가 실시한 “모자가정 여름 자립학교 운영”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료 순회 검진은 사회의 무관심과 불우한 환경에 처한 노인, 어린이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대구지부는 지난 8월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직할시 여성회관에서 100여명의 여중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염, 혈청, 클레스테롤, 빈혈, 당뇨, 신장, 혈압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이어서 11시 30분 부터는 “건강과 고혈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사회봉사활동, 매년 실시할 예정

이번 순회검진과 모자가정 여름 자립학교 운영 참가 등을 통해,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소외된 불우한 이웃이 너무도 많고, 그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전체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 귀중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건협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회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협 대구시지부는 앞으로 이와같은 사회봉사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펴갈 계획이다.

●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웃이 어려움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협 대구지부와 같은 이웃사랑실천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작은 일이 점차로 줄어들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글픈 일인 것 같다.

부족한 가운데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한가지 방법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각박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㉔